

투데이 칼럼

김정은 시대 전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환 교육'을 5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유학생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집단 소환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중단됐던 조치들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사상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를 잠정 중단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면서 지난해 해외에 머물던 외교관과 주재원을 교체하자 해외 근무 엘리트들이 잇달아 탈북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한 유학생들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권력층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북한에서는 누구나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있다. 바로 북한의 세습 체제를 떠받치는 상징물, 초상화이다. 그런데, 최근 이 휘장에 변화가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말, 다란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북한은 뒷세 번째 초대형 탄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우리 군과 북한의 설명이 엇갈렸다.

지난 5월 1일 평양 경기장에 발사된 것도 없이 사담들로 꽂았다. 경기장 곳곳엔 '미제 침략자 소멸', '미제 살인귀멸'이란 실별한 구호가 걸렸다. 최근에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대규모 빈비군중집회가 열렸다.

옛된 얼굴의 학생들부터, 인민북·양복을 입은 중앙년층 간부들까지 10만 명의 참석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왼쪽 가슴에 단 초상화들이 눈길을 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이 함께 들어간 이른바 쌍상으로, 그동안 김 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됐다.

최근 나온걸 열린 북한 제8기 제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당의 핵심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곱달 그리던 배치를 모두 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단독 초상화상이 2012년 제작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자의 언급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집권기인 10년 넘어가면서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하나다. 그리고 자기 대에 백두혈통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더 확실히 뿌리 내리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약간의 초조함도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절대적 위상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가

강조했던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2국가론에 더 힘을 실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실제 전원회의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난, 한류 등 외부 시조 유입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높이고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이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4.5톤의 탄두는 이른바 '과물미사일'로 불리는 우리의 현수-4와 비슷한 수준인데, 한미연합사의 지하 방커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도 북한 주장이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기준 최대 2.5톤 수준의 탄두 중량을 단번에 4.5톤까지 늘리기도 어렵고, 더구나 두 번째 미사일은 평양 인근 들만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다란두와 이번 초대형탄두 미사일 모두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신형 무기들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법인세 진도율 최저치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 못 미치면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이다. 한해 결할 것으로 예상한 전체 법인세 수입 77조 7천억 원의 40%가량인 30조 7천억 원에 상반기에 걸렸다는 의미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8월 중간예산을 기점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법인세를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산에서는 개선된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에 토대로 내는 3~5월에 60% 가량 걸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하는데,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

산이 시작되면서 12월 결산법인 51만7천 개는 9월 29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산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 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산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업종의 세수도 변수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상반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이 올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정부는 8월 중간예산에서는 개선된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미도 사건 유해 발굴

실미도 사건이 터진 지 50년이 넘어서야 유해 발굴에 나섰다.

군 당국이 53년 전 '실미도 사건' 당시 서울 교정으로 인쇄 사형당한 뒤 압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은 사건 뒤 52년 만에, 국방부 장관으로 처음으로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오는 9~10월 유해 발굴 개토제를 열고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이때 국방부장관의 사과가 전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을 위해 처음 땅을 팔 때 지내는 제사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방부장관의 사과는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단장이 대신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해 발굴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9월,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공작원 4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그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발굴에 나서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실미도 부대는 앞서 북한 침투 작전을 목표로 1968년 4월, 공군 예하에 창설됐던 부대(정식 명칭 '공군 제2325부대 제200과전대')이다.

이 부대 소속으로 인천 중구 무인도인 실미도에서 훈련하던 공작원 24명은,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처우에 못 이겨 1971년 8월 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탈출해 서울로 진입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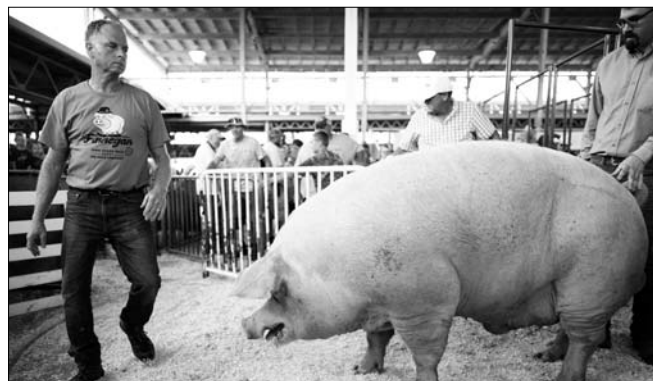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였는데, 그 결과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 공작원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생존한 나머지 공작원 4명은 이후 군법회의를 거쳐 이듬해 경기도 벽제 인근에서 사형당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들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압매장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선발대회 우승한 몸무게 645kg의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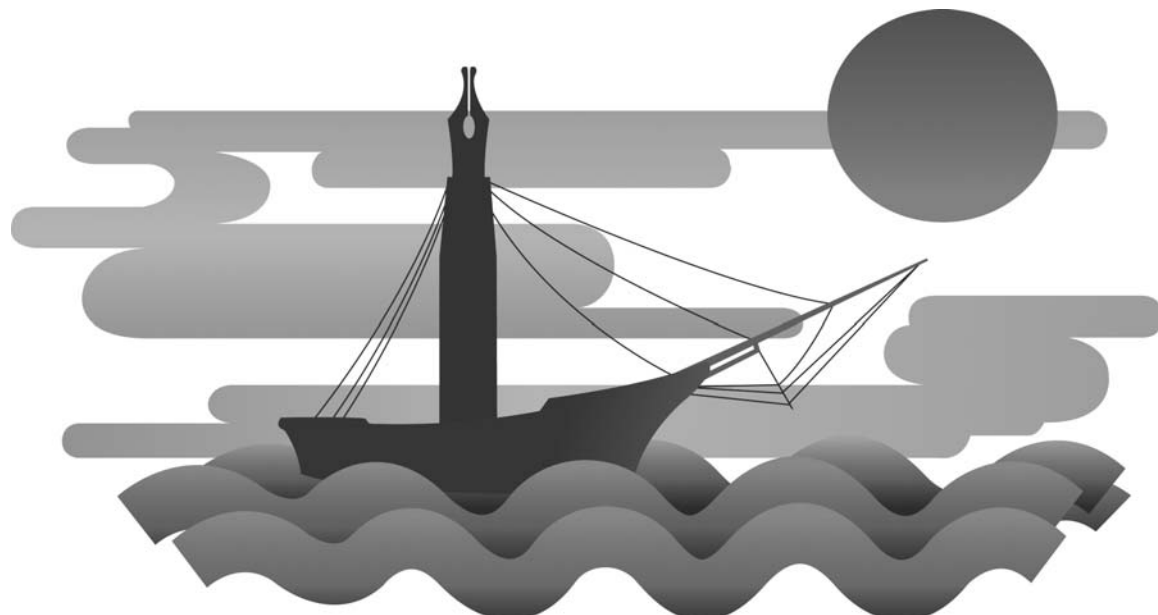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지난 8일(현지시각) 미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례 박람회 일환으로 '슈퍼 돼지 선발대회'가 열려 대회에서 우승한 '피넨'이 주인 브라이언 브리트를 따라 경연장을 나서고 있다. 이 돼지는 몸무게 약 645kg으로 박람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진으로 쓰러진 일본 식당 주방 비품들



일본 규슈 미야지키현 완바다에서 지난 8일 규모 7.1 지진이 발생된 뒤 9일 가고시마현 오시키에 있는 한 식당 주방의 비품들이 쓰러져 있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발생한 지진 이후 '난카이 트로프' 지진 일시 정보(가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일본 시즈오카현 완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으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지진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